

## “중국인 유학생 광주로 시민들 따뜻한 배려를”

광주 11개 대학 2051명 입학  
 이번주부터 수송 작전  
 코로나19 '안정화 시설' 마련  
 광주시 '면피용 행정' 불만도

중국에 머물던 유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광주지역 주요 대학으로 복귀하면서 '인권 도시' 광주 시민의 따뜻한 배려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입국하는 중국인 학생들은 모두 평범한 광주 시민과 같은 코로나19 무증상 자이지만, 중국인과 중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자칫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중국에서 대거 유학생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 격리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한국 내 중국인 혐오 여론 등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거주하는 (중국 내) 지역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광주·전남엔 3명이나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불안해하는 유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휴학을 결정한 유학생도 상당수”라며 지역 사회의 따뜻한 배려를 당부했다.

16일 광주시와 지역 내 주요 대학들 따르면 광주 11개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2551명으로, 이 중 2051명은 방학을 맞아 중국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500명은 국내에 있다. 대학별로는 호남대가 96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 826명, 조선대 375명, 남부대 149명, 광주대 105명 등의 순이다.

중국인 학생이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기숙사 중 일부를 '안정화(격리)동'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시설을 재배치하는 등 중국 유학생 맞이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개강을 3월 16일로 연기했으며,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학생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내로 들어온다.

광주에선 가장 먼저 호남대학교가 학생 수송에 나선다. 호남대는 오는 18~19일 전세버스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숙사 건물인 면학관까지 직통으로 학생 150여명을 수송한다. 국내에 150명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안정화 시설'을 마련한 호남대는 비자가간 연장이 임박한 중국인 학생을 1차(150명) 선별해 입국

을 돕고, 14일간 격리수용한다. 조선대학교는 27일 중국 교환학생 신입생 24명, 다음 달 9일 한국어 연수 신입생 10명을 인천공항에서 학교까지 수송한다. 대학들은 주요 방역시설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격리된 학생들이 안정화(격리)기간 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 중이다. 특히 호남대 등은 '격리 기간' 대신 '안정화 기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도 차별적·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 등도 각 대학들과 협의의 통해 상황별 대책 마련 및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 사이에선 광주시 등 방역당국이 지원은 커녕 '면피용 행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학생맞이 준비에 밤샘작업이 한창인데도, 회의에 참석토록 종용한 뒤 면박만 주고, 각종 보고전 제출을 수시로 요구하는 등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주시 주재로 4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각 대학별 보고를 듣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일부 간부는 ‘명색은 우리가 깔아줬으니, 나머지는 대학에서 잘 대처하라’고 하는 등 무책임한 말만 내뱉더라”면서 “최근 회의에선 모 대학 관계자가 중국학생 입국과 관련해 다른 지원은 놔두더라도 시민에게 혐오문자라도 보내달라고 건의했다가 모 부구청장으로부터 ‘그걸 왜 우리(행정)가 하냐,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면박만 당했다. 그 후 아무도 지원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우린 이런 지시를 했다’고 말할 면피용 지시만 내리는 듯 하다. 수많은 보고서 제출도 요구한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며 “안 도와줘도 좋으니 제발 그만 좀 괴롭혔으면 하는 게 대학현장의 목소리”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학생수 감소와 수년간 학비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대학들은 이번 코로나19 격리 조치 등으로 수익원(중국인 유학생 500명 격리 기준·3~4억원)대의 비용부담이 예상되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첫눈이 드디어 내렸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들, '코로나19'로 답답한 가슴들에 첫 눈이 쏟아진다. 광주·전남지역에 일제히 눈이 내린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역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쌀쌀한 날씨에도 행복해 보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우수가 모레인데 ... 지각 첫 눈이 폭설

반짝 추위 19일까지 이어져

적설량 0cm의 '눈 없는 겨울'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반짝 추위와 함께 큰 눈이 내릴 전망이다. '반짝 추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16일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새벽을 기해 광주와 담양·곡성·구례·장성·함평·영광 등 전남 7곳에 대설예보(24시간 5cm 이상)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17일 밤까지 눈이 내린 뒤 18일에는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와 일부 전남지역에는 17일 밤까지 5~10cm, 많은 곳은 최대 20cm

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간간히 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다.

16일 한때 광주·전남지역에는 눈발이 날렸지만 쌓일 정도의 눈은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은 1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

서 빠르게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9일까지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기상청은 20일부터는 평년(낮 최고기온 8.6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돼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일부터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민주, 경선 레이스로 '바람몰이' 야, 호남 통합신당으로 '돌파구'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에 막을 올리며 뒷발 탈환에 나섰다. 야권은 통합과 신당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3, 4면>

민주당은 13일부터 차례로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높은 지지율 속에 민주당 경선에 쫓긴 지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순차적 경선 바람몰이로 지지세를 굳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략·단수공천을

최소화하고 불법과 탈법, 네거티브 선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변수와 잡음을 줄여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줄세우기와 편 가르기가 난무하고 불법 당원 모집, 고소·고발 등의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심위 일각에서는 호남에서의 여성 전략공천 및 단수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 국면에서 '통합'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에서 분열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호남계 의원들은 17일 합당하고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경쟁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통합신당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민주당과의 한 판 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물론을 중심으로 연정과 연대를 통해 제4기 민주정부 구축에 함께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남 중진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고 '도로 호남당'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안철수 전 의원이 중도 세력을 표방하며 만들고 있는 국민의당도 관심이다. 안 전 의원은 보수와 진보, '반 문재인 연대'를 내세운 통합 움직임과 거리를 두며 중도 세력을 끌어모아 다시 바람을 일으키겠다

는 복안이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인 데다, 지역 기반도 '호남 신당'으로 물리는 분위기여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민주당 등 진보 진영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당 투표'의 위력이 커진 만큼 정당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고 진보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지역에서 최소 20% 넘는 정당 득표율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